

성경과 칼빈주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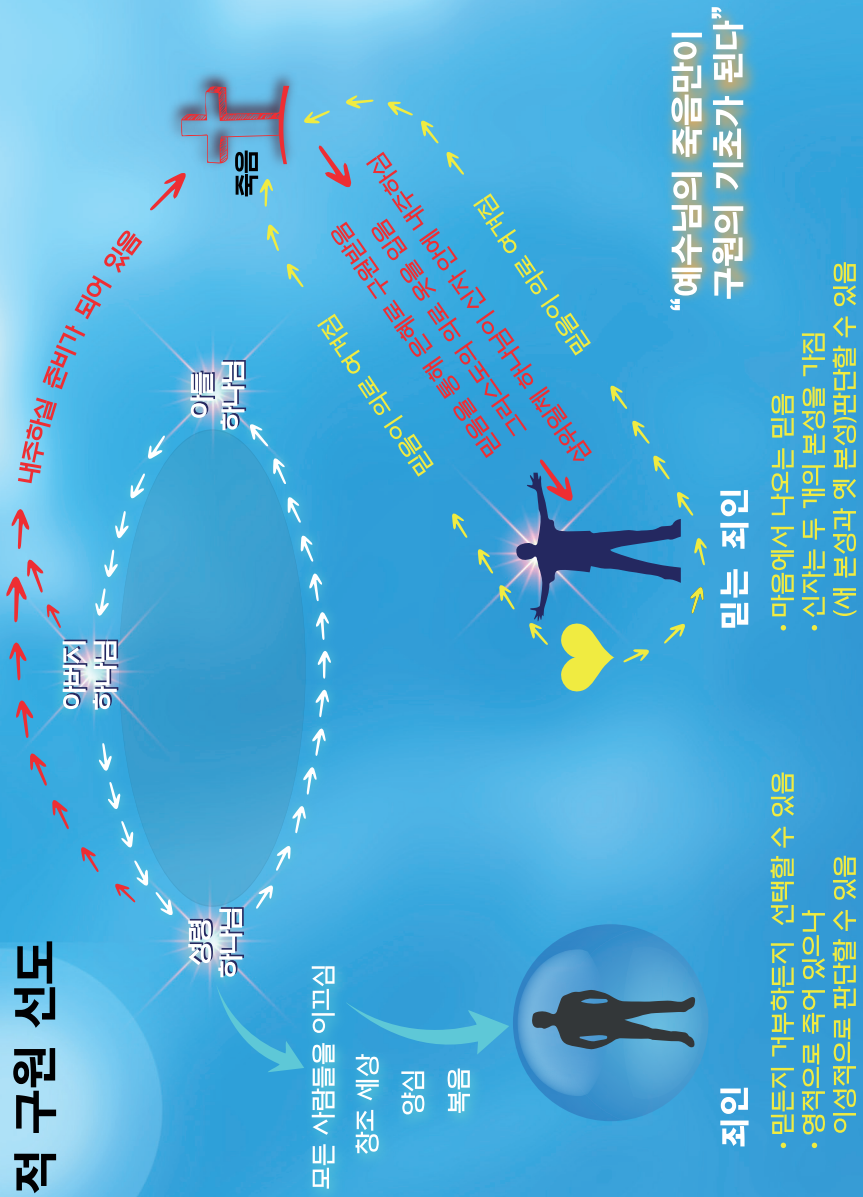


칼빈주의는 아직까지도 확고하게 정립된 이론이 아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지금도 '타락 이전 선택설', '타락 이후 선택설', '원죄 이후 선택설' 등을 놓고 다투고 있다. 하나님의 작정의 순서를 보여 주는 다음 표는 창조와 타락, 선택과 유기 등에 대한 칼빈주의자들과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의 견해와 성경적 교리를 요약해서 보여 준다.

타락 전 선택 (Supralapsarian)	창조	▶ 선택과 유기 (이중 예정)	▶ 타락 허용	▶ 선택받은 자들만 을 위한 속죄	▶ 중생과 성화를 위해 성령님이 선물로 주어짐
타락과 동시 선택 (Infralapsarian)	창조	▶ 타락 허용	▶ 몇몇은 선택을 받고 나머지는 정죄를 받도록 정해짐	▶ 선택받은 자들만 을 위한 속죄	▶ 중생과 성화를 위해 성령님이 선물로 주어짐
타락 후 선택 (Sublapsarian)	창조	▶ 타락 허용	▶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이 주어진다 는 조건하에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	▶ 믿을 수 있는 능 력과 은혜를 주 기 위해 하나님 께서 몇몇은 선 택하고 나머지는 정죄를 받도록 정하심	▶ 성화를 위해 성령님이 선물로 주어짐
아르미니우스 주의 (Arminianism)	창조	▶ 타락 허용	▶ 개인이 믿는다는 조건하에 모든 사 람을 위한 속죄	▶ 자유 의지로 믿을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천히 예정하심	▶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에 협력 하는 모든 자들 이 구원 받음 (구원을 잃을 수 있음)
성경 (Bible) 	창조	▶ 타락 허용	▶ 개인이 믿는다는 조건하에 모든 사 람을 위한 속죄	▶ 자유 의지로 믿을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천히 예정하심	▶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건기를 선택 함으로써 은혜에 협력하는 모든 자 들이 성화됨(구원 을 잃을 수 없음)

(*) 영어 'Lapsarian'은 사람의 타락을 뜻하며 'Supra'는 이전, 'Infra'는 이후, 그리고 'Sub'도 이후를 뜻하되 특히 원죄 이후를 뜻한다.

성경적 구원 선도



- 믿든지 거부하든지 선택할 수 있음
- 영적으로 죽어 있으나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마음에 새겨 나오는 믿음
- 신자는 두 개의 본성을 가짐 (새 본성과 옛 본성) 판단할 수 있음

성경적 구원 선도 설명

삼위일체 즉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들 하나님은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신격 안에서 서로 교제하신다. 성경에는 시간이 생기기 전에 무슨 언약이 있었다는 말이 없다.

아버지 하나님은 사람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로 창조하시고 그가 타락하는 것을 허용하시며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속죄물로 예비하시고 복음을 믿는 자들을 선택하시며 구원 뒤에도 믿음에 따라 걸을지, 육신을 따라 걸을지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성화시키기 위해 자신의 영을 통해 일하신다.

역시 창조자이신 **아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죽으시고 믿는 자들에게 자신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과 자신의 의와 칭의를 주신다.

성령 하나님은 창조 세상과 양심과 복음을 통해 모든 사람들을 이끄신다. 단지 소수의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한 어떤 특별한 준비 같은 것은 전혀 없다. 믿는 자들 가운데 내주시는 성령님은 그들에게 구원과 부활의 확신을 주신다. 성도들은 섬김을 위해 각각 필요한 선물을 받는다.

복음을 믿는 죄인들이 자기 마음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피의 공로만을 믿기로 결정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하도록 하나님에 의해 선정된다. 믿는 자들은 구원을 은혜로 받고 그리스도 안에 놓이며 그분의 의로 옷을 입는다. 또 그들은 구속의 증표로서 성령님을 받으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과 교제한다. 이 외에도 성도의 위치와 관련하여 몇 가지 일들이 생긴다.

믿는 자들은 두 개의 본성을 갖는다. 그들에게는 힘을 잃은 옛 사람과 육신의 몸 안에 여전히 거하는 죄성이 있지만 새 사람이 믿는 자들 안으로 들어왔고 그들은 자신들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 믿는 자들은 자신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삶을 살고 선한 행위를 이루어야 하지만 육신을 따라 살 때는 종종 여전히 죄를 지을 수도 있다.

구원은 복음을 믿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선물이다. 영벌의 정죄 즉 유기는 사람이 믿지 않기로 선택한 결과로 그에게 닥친다.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든지 거부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칼빈주의 구원 선포 설명

삼위일체 즉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들 하나님은 신격 안에서 서로 교제하시며 구속의 언약을 맺으신다.

아버지 하나님은 사람의 창조를 작정하시고 타락을 작정하시며 어떤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선택하시고(따라서 다른 사람들은 영벌에 이르도록 유기됨) 선택 받은 자들만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이 속죄하도록 작정하시며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속죄를 오직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적용하도록 작정하신다.

아들 하나님은 (1)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해 대속물로 죽으시고 (2)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해 이 땅에서 완벽한 삶을 사셔서 율법을 지키므로써 얻는 의를 획득하신다.

성령 하나님은 내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1) 선택받은 자들에게 속죄를 적용하여 그들이 믿기 전에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2) 그들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어 복음을 믿고 반응할 수 있게 하신다.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끌려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서 (1) 믿기도 전에 다시 태어나고 (2) 칭의를 위해 필요한 의 즉 땅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심으로 획득하신 의를 얻는 데 필요한 복음을 믿을 수 있게 해 주는 믿음의 선물을 받는다. 그러므로 이들의 구원에는 무조건적 선택과 저항할 수 없는 은혜와 믿음의 선물과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신 삶과 십자가에서의 죽음 등이 모두 필요하다.

선택받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의로 표현되는 단 한 가지 본성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그들은 믿음의 선한 행위 면에서 끝까지 인내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그런데 이런 행위들이 지속적으로 끝까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 받지 않은 사람이다.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외적으로 창조 세상과 양심과 복음을 통해 성령님에 의해 이끌림을 받지만 전적으로 부패하여 죽었으므로 결코 믿을 수 없다. 이들에게는 죽어 있는 자들을 살리고 믿을 수 있게 해 주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없다. 그들이 믿을 수 있게 해 주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는 영벌의 정죄는 그들의 선택의 결과로 여겨진다.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밖에 없다.

구원은 선택받은 자들의 참여 없이 오직 하나님의 단독적인 일로 여겨진다. 선택 받은 자들은 오직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해 십자가에서 흘려진 그리스도의 피를 믿기도 전에 구원받는다.

칼빈주의 5대 강령 비교

칼빈주의 5대 강령은 아름다운 꽃 튜립(Tulip)을 많이 생산하는 나라인 네덜란드에서 나왔고 TULIP의 5글자를 따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릴 수 있다.

- T**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 혹은 부패)
- U**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 선택)
- L** Limited atonement (제한 속죄)
- I** Irresistible grace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거역할 수 없는 은혜)
- P**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들의 견인 혹은 인내)



칼빈주의 진영에는 극단적 칼빈주의자들과 온건한 칼빈주의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대개 영원히 버림받는 유기 교리와 속죄의 범위,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아닌지에 대해 서로 의견이 다르다. 칼빈주의 TULIP을 요약한 다음 표는 칼빈주의자들과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의 견해와 성경적 교리를 요약해서 보여 준다.

TULIP 비교

	T	U	L	I	P
극단적 칼빈주의	전적 타락 (사람이 스스로 믿을 수 없음)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저항할 수 없는 은혜(사람이 믿기 전에 종생과 믿음이 주권적 선물로 주어짐)	성도의 견인 (율법 준수에 의해 복종이 가능함)
온건한 칼빈주의	전적 타락 (사람이 스스로 믿을 수 없음)	무조건적 선택	무제한 속죄	저항할 수 없는 은혜(사람이 믿기 전에 믿음이 주권적 선물로 주어짐)	성도의 견인 (은혜에 의해 복종이 가능함)
아르미니우스주의	자유 의지 (사람이 스스로 믿을 수 있음)	조건적 선택	무제한 속죄	저항할 수 있는 은혜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 구원을 잃을 수 있음
성경	자유 의지 (사람이 스스로 믿을 수 있음)	조건적 선택	무제한 속죄	저항할 수 있는 은혜	믿음에 의한 성도의 견인 (구원을 결코 잃을 수 없음)